

일본 지방도시 관광객 유치 박차

전북도, '월드마켓&투어리즘 2017'에 전남-광주광역시와 공동 참가 관광 홍보관 운영

전북도는 해외 관광시장 다변화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일본 기타큐슈시에서 개최하는 '월드마켓&투어리즘 2017'에 전남-광주광역시와 공동으로 참가해 전라도 관광 홍보관을 운영하고 일본 지방도시 관광객 유치 마케팅 활동에 박차를 가했다.

이번 '월드마켓&투어리즘 2017' 행사는 서일본 산업무역컨벤션협회 주관으로 일본 국내의 관광업계가 다수 참가하는 최대 박람회로서 전남 무안 공항 정기노선 취항지역인 기타큐슈 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일본의 중소도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이다.

전라도 홍보관은 한국과 일본 지방 공항 간 직항 노선이 활발히 운영됨에 따라, 공항 접근성이 편리해진 일본의 지방 중소도시에 인지도가 미약한 전라도를 알리기 위해 2018년 전라도 정도(定道) 천년을 기념하는 테마로 구성했다.

전북도는 전주 한옥마을, 진안 마이산, 정읍 내장산 등 대표 관광지과 일실 치즈체험, 전주 한옥마을의 한복 체험, 무주 태권도원의 태권도 체험 등 즐길거리로 부스를 운영해 홍보관을 방문하는 일본 관광객들에게 전북도의 매력적인 관광자원과 각종 체험 프로그램을 집중 홍보했다.

또한 홍보관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익산 보석박물관의 보석팔



이어지는 사전투표 행렬 지난 4일 오전 전주시 효자동 사전투표소인 효자동 주민센터에서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찌 만들기 체험과 SNS 전북도 해시태그 이벤트를 펼쳐 관광객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전북도의 인지도 향상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 밖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일본 개별관광객을 사로잡을 외국인 전용 서울-전북 정기 셔틀버스 운행제도와 전북관광의 대표 브랜드상품인 전북투어패스를 적극 홍보하여 개별관광객 유치 공략을 펼쳤다.

앞으로도 전북도는 전남-광주광역시와 공동 협력해 사드여파로 중국관광객의 감소에 따른 해외관광객 유치 다변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22일에는 오사카 트래블 마트, 24일에는 후쿠오카 한국문화관광대전에 참가해 1:1 비즈니스 상담회 및 전라도 관광설명회를 개최해 언론 및 주요 아웃바운드 여행사를

대상으로 전라도 관광상품을 판매 홍보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2018년도 전라도 정도 천년을 기념해 전북-전남-광주광역시 일본 관광시장에 대한 호남권 공동 마케팅을 통해 견고하게 다져진 협력기반을 발판으로 중국 의존에서 벗어나 대만, 동남아 관광시장을 개척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재용 기자

전북선관위, 투·개표 관리 준비 만전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실시하는 제19대 대통령선거의 투·개표관리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선거일 전일까지 도내 615곳의 투표소와 15곳의 개표소의 설비를 마칠 계획이다.

투표용지와 투표함은 선거일 전일까지 읍면동선관위에 도착되고, 읍면동선관위는 선거일 새벽에 투표용지 등을 각 투표소로 안전하게 운반하게 된다.

도선관위는 선거일이 투표소를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투표소를 설치하고 특히,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서 투표소 소재지 사이에 대중교통 수단이 없거나 1일 대중교통의 운행횟수가 6회 이내인 교통이 불편한 지역의 선거인에 대해서는 교통

편의 차량을 제공한다.

또한, 장애인 및 노약자 등 투표참여에 불편함이 있는 선거인을 위해서는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된 장애인 전용차량 및 활동보조인을 운영하고 투표안내사무실을 배치하는 등 투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아울러, 투·개표소의 전기·소방 및 통신시설 등에 대한 안전대책을 점검하고 투표당일 투·개표소 내외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소요사태가 발생할 때에는 신속하게 경찰에 협조를 요구하는 등 투·개표소 질서유지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특히, 관할 구역 안에 주소를 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공모해 선정된 개표참관인 121명이 개표 전 과정을 지켜볼 예정이다. /인재용 기자

'풍수해보험 가입 강조기간' 7월까지 운영

전북도는 여름철 호우·태풍 등 자연재해 피해로부터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집중호우가 발생하기 전인 7월까지 '풍수해보험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한다.

또한 가입 강조기간 동안 주거취약계층 등 중점가입 대상자 및 전년도 보험 가입자의 재가입을 위해서 집중 홍보를 시행할 예정이며, 읍면동사무소에 풍수해보험 전담창구를 운영하는 한편, 국민안전처의 보험전문가 지원을 받아 시·군을 순회해 풍수해보험 교육과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다.

풍수해보험은 주택과 농업·임업 운실이 가입대상이며, 보험료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해 국민들은 저렴한 보험료로 태풍·홍수·호우·강풍·대설·지진

등 자연재해에 대처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보험료의 55~62%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는 88%, 차상위계층은 77%까지 정부에서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온실의 경우에는 주민 부담 경감을 위해 주민이 부담하는 보험료의 절반까지를 전북도와 시군에서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이현용 도민안전실장은 "현재 정부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금액이 적다"며 "주택 전과되면 900만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지만,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주택면적 50㎡ 기준 4,500만원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니 보험을 적극 활용하시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경제민주화' 도민 제안 공모

전북도는 8일부터 6월 12일까지 '지역 밀착형·맞춤형 경제민주화 정책 발굴 및 개선사항'에 대해 도민 제안 공모를 실시한다.

공모분야는 동남성장, 공정거래, 노동환경 3개 분야이며, 실생활에서 필요성을 체감하는 정책과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 제안할 수 있다.

응모는 전라북도 도민 제안 공모 전용 홈페이지인 '별별공리'(http://idea.jb.go.kr)를 통해 할 수 있고, 도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가능하다.

7월 중 우수 제안을 선정 발표시상 예정이며, 우수 제안은 경제민주화 지원 기본계획과 향후 사업에 반영하고, 정부에 법령·제도 건의자료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공모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전북도청 일자리경제정책관실(063-280-2794)로 문의할 수 있다. /인재용 기자

전북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사업' 접수

생강·건고추·노지수박 대상 10일~6월12일까지

전북도 민선6기 삼락농정 핵심사업인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했을 경우 가격차액 등을 지원함으로써 지속적인 영농활동 보장 및 농가소득을 보전해주는 사업이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지난해 가을배추, 가을무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도는 도내 농업인의 농가경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올해는 시군별로 추진할 2개 품목을 추천받아 마늘, 양파, 생강 등 7개 품목으로 확대했다.

지난 2월에는 마늘, 양파를 대상으로 하는 전주시 등 4개 시·군 신청결과 196농가 사업에 참여했으며 이는 지난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추진했던 가을배추, 가을무의 88% 수준으로 농업인의 많은 관심을 통해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생강(익산시,김제시,임실군), 건고추(정읍시,원주군,무주군,장수군,순창군,부안군), 노지수박(진안군,고창군)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도내 농업인은 10일부터 6월 12일까지 지역농협 등과 농산물 출하 계약서를 작성한 후, 사업신청서와 함께 소재지 읍

면사무소 및 지역농협 등에 제출하면 된다.

전북도는 참여 농업인 재정 부담없이 농산물의 최저가격을 보장해주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이 전 국민의 특화된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 사업임을 강조하면서 시군별 찾아가는 사업 설명회 및 간담회를 통해 적극적인 사업신청을 유도함과 동시에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향후 시범사업 기간의 성과와 미비점을 분석해 사업 확대여부와 운영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품목 간 수급상황과 가격을 점검하는 등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제값 받는 농업' 실현을 위하여 헌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인재용 기자

도, 6차산업 인증사업자 184개소 전국 최다

1분기 14개소 경영체 지정돼

전북도는 6차산업(융복합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도내 14개소 경영체가 1분기 6차산업 인증사업자 지정에 따라 누적 인증사업자 총 184개소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증사업자에게는 농식품부장관 명의의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서를 발급하고, 우수제품 유통품평회 개최, 우수사례경진대회, 6차산업 온라인 사이트에 인증정보를 등록해 6차산업 인증 사업의 제품은 인증표시를 부착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홍보하게 된다.

또한, 6차 산업을 통해 우수 경영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신제품 개발, 품

질관리 현장 코칭, 자금 지원, 새로운 유통 채널구축, 등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인재용 기자

9개 약수터 수질 안전성 조사

전북보건환경연구원은 행락철인 5월을 맞아 먹는물공동시설 약수터의 수질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은 시·군 지정 약수터 9개소를 대상으로 먹는물 수질기준과 야생동물의 배설물에 기인하는 병원성 미생물인 예시니아균까지 총 47항목을 분석해 먹는물 수질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인재용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